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사업 국가중장기 계획 반영 '강행군'

송하진 도지사, 기재부에 철도망 구축 등 재촉구 나서 농식품부 찾아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지원 요청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방문해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전북도를 경유하는 철도는 12건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에서 요청한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노내대교 건설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국가중

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외에, 전북도는 전북 혁신도시, 국가식품산단 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송에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 필요성도 역설했다.

평택에서 부여를 거쳐 익산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1단계 평택에서 부여 구간(94.3km)은 2019년도에 착공돼 공사가 진행중이나, 2단계 부여에서 익산 구간(43.4km)은 10년뒤인 2029년도에나 착공계획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새만금신항만, 새만금공항과 함께 복합물류 수송체계(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해 새만금항에서 대아역까지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도 요청했다.

이어, 송 지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전북의 새로운 미래 씨앗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가 4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 지사는 "식품·전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천혜의 조건과 연구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육성해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를 위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식품·전자·체합·교육·쇼핑 등 복합적인 푸드파크 조성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17억원, 미생물 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지역에 GMP 기반 농축산물미생물 CRO 지원 국비 10억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교육기관 구축에 3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5월이 가장 중

요한 시기인 만큼, 도정 역량을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가 오는 10일 문체부, 해수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며, 5월 6일 최후 행정부지사, 5월 14일 우병기 정무부지사, 실·국장 주 2회 이상 방문 등 지휘부가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코로나19 인한 투자 불확실성 증대 대응

독일 전기차 기업 30곳 초청 화상 투자환경 설명회 열어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직접 투자유치 활동 어려움과 투자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기업들을 화상으로 초청하는 투자환경 설명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한독상공회의소(KKCCI)와 함께 전기차 분야의 독일 현지 기업들과 국내에 투자한 독일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번 설명회에 3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 설명회에서 양선화 도 투자금융과장은 전북도의 전기차 산업 현황과 새만금 산업단지 및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독일기업들의 전북도 투자 관심을 이끌어냈다. 평가를 받았다.

이어, (주)명신의 박호석 부사장이 명신의 향후 전기차 생산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 시장진입, 2단계 고객 다양성, 3단계 친환경 전기차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원정 연암공과대학 교수(前LG생산 기술원 책임연구원)는 리튬 이차전지 생산 과정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기 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기 PLC(Product Life Cycle)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각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지수리, 전지 재사용, 폐전지 재생 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영 선영파트너스 대표는 독일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있어 유의 사항 등을 발표하며, 특히 자동차 분야 인증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독일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전북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추가 투자 관련 자료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 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선화 도 투자금융과장은 "전북도가 전기차 신산업 생태 구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며 "전북도 전기차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하며, 독일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유호상 기자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 추가

전주시, '4+1' 고용안정망 구축

거버넌스·고용안정망·플랫폼 노동자 지원 전주형 일자리 등 전략 추진에 신규사업 더해

전주시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주형 고용안정망을 구축한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전주형 고용안정망 '4+1' 전략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주형 고용안정망 '4+1' 전략은 ▲거버넌스 구축 ▲고용안정망 구축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전주형 일자리사업 등 4개 전략에 핵심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이 추가돼 운영된다.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숙련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

업이다. 시는 희망기업을 100개소를 모집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제도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제도 등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추진됐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에 퇴직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또 거버넌스 구축 분야의 경우 기업인과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사회연대 위원회가 꾸

려져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맡는다.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와 전주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자문단이 뒤를 받친다.

시는 고용안정망 구축 전략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 능력개발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고용유지특별지원금 이차보전 ▲신사업진출 지원사업(모태펀드)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7개 세부사업

을 마련했다.

이중 신사업진출 지원사업은 모태펀드 100억원을 조성해 지역 제조업체 20곳이 유망한 신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규모는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2배 늘어나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업장별 3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새롭게 지원된다.

여기에 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고, 탄소산업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탄소산업 분야 전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도 주력해 경영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고용

유관기관과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근로자 이직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추진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평균 이직률은 0%인 반면, 전북 평균 이직률은 0%인데 반해, 상생협약기업의 이직률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이나 모태펀드 조성은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면서 "일자리라는 위기를 막아내는 사회적 방파제이자 코로나 이후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만큼 고용유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염병의심되면 '1339'로

제3회 그린환경사랑 JB 청소년(UCC) 유튜버 공모전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주최 **전북은행** www.jbbank.co.kr

공모내용 **나와 환경, 내 주변 환경 이야기**

참가대상 **도내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 개인 및 단체**

문의처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사무국(☎063-250-7495,7496)**

접수기간 **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31일(월)**

시상 **총 5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표창장**